

코로나 보릿고개 격암유록 상의 3년 흉년인가?

코로나19가 계속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연일 5-6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연 말을 맞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며 연말 회식 및 모임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개벽 직전 발생 괴질의 가공할 위력

울초 신천지 대구지부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본지는 혹시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일부 종교 단체에서 말세 또는 개벽 운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포교 및 전도에 이용할 것을 우려하여 코로나19는 격암 유록에 예언된 괴질이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격암유록에 예언된 괴질은 조생 모사(衛生暮死), 즉 아침에 걸리면 저녁이면 죽는 무서운 치사율을 가진 질병이지만 현재 코로나19는 치사율이 가공할 정도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참고로 증산 선생과 조희성 구세주께서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 증산 선생은 "괴질은 한국에서 처음 발병 하는데 병질이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군산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도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시발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된다(道典7:41)"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성 구세주께서도 "이제는 걸어가다가 그냥 퍽퍽 쓰러져서 죽는 시대가 온다. 조금 있으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을 알고 마귀가 한 생명이라도 삼켜버리고 같이 죽으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십 리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때가 온다고 격암유록에



서기 6세기 중반 동로마 제국을 강타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Plague of Justinian)'으로 당시 유럽과 주변 지역에서 2천 5백만 내지 1억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써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그랬다. 격암 유록에는 세밀하게 써어 있다. 피가 시커멓게 되면서 응고가 되어 굳어버리니까 심장마비로 뻘어서 죽는다. 그런 시대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2000.10.24. 말씀)"라고 하셨다.

구세주 풍년 약속으로 식량은 전혀 부족 안해

과거 한국은 이삼 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었다. 그러나 구세주의 풍년 공약으로 80년대 이후에는 흉년이 전혀 안 들고 있다. 그 이전에는 쌀이 떨어져서 봄이 되면 보리로 겨우 연명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춘궁기(春窮期) 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겼는데 요즘은 계속 풍년이 드니 이 말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독자들 중 IMF를 겪은 어르신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997년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국가부도라는

위기를 처음 맞았었다.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빌리게 되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백성들이 굶어서 죽지는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굶주림을 겪는 일은 없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환란(換亂)을 일찍 졸업할 수 있었다.

코로나 보릿고개

격암유록에는 말세에 삼년간 흉년이 들고 2년간 괴질이 돈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때에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이름 모를 괴질이 돌아 인류의 10분의 9가 멸망한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괴질이 돌기 전에 먼저 3년 동안 흉년이 들어 국민들의 생활이 파헤해진다는 예언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격암유록에 예언된 흉

년을 글자 그대로 풀어 곡식이 떨어져서 생기는 흉년이라고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새로운 개념의 흉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업자들이 남쳐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를 정리하여 주머니에 돈이 고갈되고 있으니 말이다.

미륵불 믿으면 모든 환란 벗어난다

만일 현재의 상황이 격암유록에 예언한 3년 흉년과 2년 괴질에 딱 맞아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격암유록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다. 즉 마귀 죽이는 기도, 멸마경(滅魔經)을 지성으로 외워야 된다고 하였다.

當服痲常誦呪 萬魔皆消海印설세 당복염마상승주 만과개소해인

인류의 어머니 미륵불(정도령)께 복종하고, 미륵불이 가르쳐 주신 '나리는 마귀마음'을 없애주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해인(海印)을 받아먹어야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괴질을 어떻게 주문같은 것을 외워서 박멸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 한번 외워보시라. 박멸소탕 기도(멸마경)는 그냥 평범한 기도 아니다. 미륵불께서 마귀 죽이는 영력(靈力)을 글자마다 불어넣은 기도이다. 마음먹는 대로 되는 때이다. 이 기도를 외울 때 미륵불이 직접 오셔서 마귀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언제 마귀가 괴질을 일으킬지 모른다. 밤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 괴질에 걸리는 불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

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아담은 남자(陽)가 되고 해와는 여자(陰)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가 음양의 세계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이 성경 전편에 숨겨져 있으며, 십사만사천도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이다.

십사만사천에서 십(十)은 하나님을 뜻한다. 십이라는 숫자는 한자로 써도 一 + 丨이다. 一은 일등을 뜻하기도 하며, 임금 왕을 쓸 때 첫 획이므로 왕을 뜻하는 약자이기도 하다. 丨은 일등을 뜻하는 숫자다. 아리비아 숫자로 쓴 10 또한 1+0이다. 이는 하나는 완전하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을 뜻한다.

사만(四萬)은 해와이간지를 뜻한다. 四는 땅의 완전 수다. 萬은 초 + 丨에 田 + 丨 + 丨이다. 丨은 십자가 두 개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밭(田)이라고도 한다. 田 + 丨는 향할 向에 一과 丨이다. 이 말의 뜻은 여자가 기도를 하여 두 번째 이간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사천(四千)은 아담이간지를 뜻한다. 四는 땅의 완전 수다. 千 = 丨 + 丨 + 丨이다. 丨은 사람 사람을 말한다. 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십사만사천은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십사만사천의 뜻을 바로 알면 사비비 목자들에게 현혹될 수 없다. 승리제단 진리체계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8>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말씀을 따라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와 내가 없는, 인간 전체가 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지 상상해보라. 너와 내가 없는 세상은 국경이 필요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전체가 하나가 된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대로 생각

하지 않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전 세계가 점차 이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있다. 최첨단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면서 계속 따라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중추신경계

사람에게 중추신경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식물인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통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수용하고 조절하며 운동,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는데 뇌는 머리뼈의 안쪽에 위치하고 척수는 척추관 안에 위치합니다.

뇌는 대뇌, 간뇌, 중뇌, 소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수의 끝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뇌는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고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뇌 단면의 바깥부분은 회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속부분은 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척수는 척추관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뇌와는 반대로 바깥부분이 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섬유가 존재하며, 안쪽부분은 회백질로 신경세포체와 시냅스가 모여 있습니다. 척수의 길이는 약 45cm, 무게는 25g 정도이며 나오는 부위에 따라 목분절, 가슴분절, 허리분절, 엉치분절, 꼬리분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척수도 척추뼈와 뇌척수액을 통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뇌는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대뇌 :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좌우 2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능력, 통찰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소뇌 : 대뇌 아래쪽에 위치하며 뇌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몸의 자세와 근육 긴장도를 교정하여 보다 정밀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평형각각을 담당하여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 뇌간(뇌줄기) : 대뇌반구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수많은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뇌(중간뇌) :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운동, 흥제조절과 같은 시각반사와 청각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 교뇌(다리뇌) : 중간뇌와 소뇌 사이에 존재하며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을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 연수(숨뇌) : 척수와 다리뇌 사이에 존재하며 호흡, 순환운동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 척수는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대뇌로 전달하고, 대뇌로부터 받은 운동 명령을 우리 몸으로 전달하여 우리 몸의 신경계와 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지럼증은 말초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중추신경계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지럼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뇌혈류가 감소되어 나타나는데, 반월이나 기립성 저혈압,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이런 증상을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의 문제로 생긴 어지럼증보다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

치할 경우 질병이 진행되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주호 기자

십사만 사천의 뜻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십사만사천의 하나님의 인(印)을 받은 자 또는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나온다. "내가 인(인) 받은 자(자)의 수(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자손)의 각(각) 支派(지파) 中(중)에서 인(인) 받은 자(자)들이 十(십) 四萬(사만) 四千(사천)이니" 이 구절을 보고 '십사만사천'을 144,000명의 구원 받은 자라고 푸는 목사나 신학자는 다 사이비다. 사이비종교 교주들은 이 구절을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헌금을 받는 데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당신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결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거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십사만사천을 숫자 144,000명으로 푸는 것은 종교사기꾼들의 해석

종교사기꾼들은 특권의식을 신도들에게 심어준다. 하나님은 당신들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나약한 마음을 이용한다.

그렇다면 십사만사천은 무슨 뜻일까? 십사만사천은 바로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를 말한다. 태초에 삼위

구세주에 배 말씀집

신간서적 5
우리제단 서구용

200년 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138쪽 / 큰 판본공배

- ▶ 구세주 예배 말씀집 3집 펴냄
-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녹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11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김영민 승사



5지역 강춘희 부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윤봉수회장)은 8일 구역장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지역 1등: 5 지역(지역장: 박철수,

- 지회장: 신순이
- 2등: 3 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3등: 2 지역(지역장: 서보복,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21 구역(구역장: 안명숙)
- 2등: 53 구역(구역장: 석선자)
- 3등: 6 구역
- *개인 1등: 김영민 승사
- 2등: 석선자 권사
- 3등: 김인숙 집사*